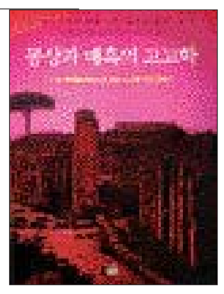
북스
Books

고대 세계를 재창조한 몽상가들
"상상력은 역사의 어머니다"

몽상과 매혹의 고고학
쎄람 지음 강미경 옮김



숭례문이 불타버렸다. 온 국민은 가슴 졸이며 불길에 휩싸인 국보 1호의 최후를 지켜봐야 했다. 왜 이토록 인간은 문화재와 고대 유물에 애착을 갖는 것일까?

고고학의 역사를 다룬 독일인 저자 쎄람의 '몽상과 매혹의 고고학'에 해답이 있다. 박물관의 유리 상자 안에 담긴 유물을 감상하는 대부분의 관람객은 발굴 과정과 고고학자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들처럼 유물을 찾아 목숨을 바치는 그들의 무모한 도전과 꿈이 있었기에 우리는 인류의 위대한 문화재와 유물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고고학의 고전인 '낭만적인 고고학 산책'을 출간한 쎄람이 유물을 찾아 나선 사람들과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사건들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알기 쉽게 풀어냈다.

이 책의 키워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몽상'과 '매혹'이다. 최근의 고고학은 첨단 발굴 장비를 동원해 수중과 공중에서도 이뤄지는 전문 학문이지만 과거에는 몽상가들의 무모한 도전에 의존했기 때문에 붙여진 제목이다.

수많은 몽상가가 고고학에 매료되는 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와 처음 보는 유물에 대한 호기심과 충격 때문이었다. 1948년 로마의 아피아 가도에서 돌을 깨던 인부들이 여성 미라 '아피아 가도의 처녀'를 발견한 뒤 로마는 충격에 빠졌다. 매일 2만여명의 사람들이 미라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급기야 교황 인노켄티우스 9세는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몰래 미라를 옮겨 묻어버렸다. 썩지않고 아름다운 미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한 여성의 미라는 당시로써는 종교·문화적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고학의 여명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체계적인 발굴과 학술적인 연구가 아니라 극소수 애호가와 수집가들의 호기심 때문에 땅을 파고, 굴을 뚫어 유물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는 인류의 대표적인 유적과 유물인 폼페이, 피라미드, 미라를 발굴하는 과정의 좌충우돌 해프닝을 소개하고, 고고학이 예민한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해서만 발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류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고대 유물에 대해 애착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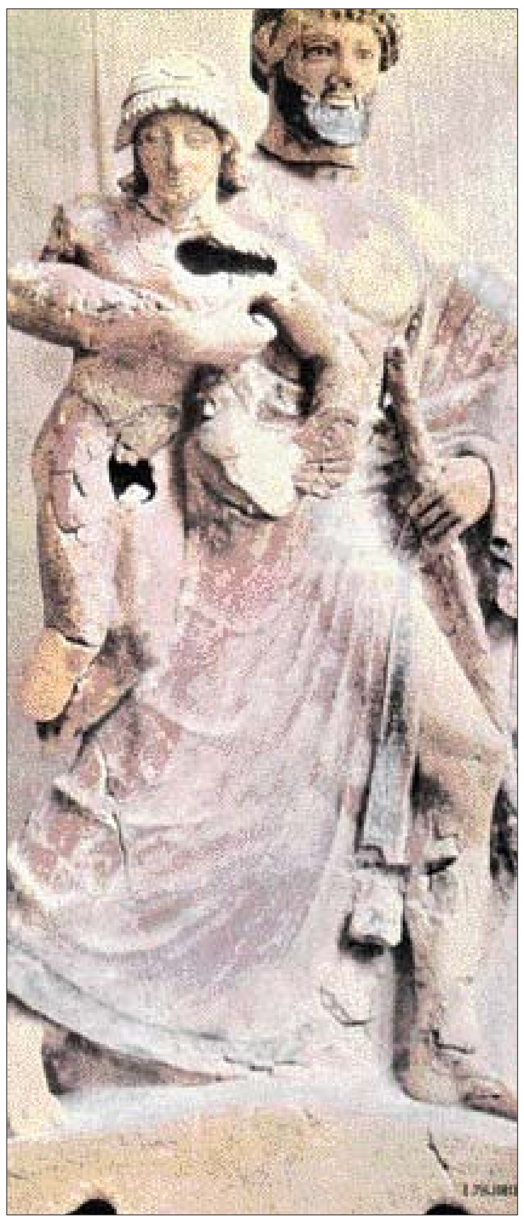
페르세폴리스의 설형문자가 27살 젊은이의 단순한 내기를 계기로 해독되는 등 인류의 낭만적인 모험가들 덕분에 발전한 고고학의 뒷이야기를 들려준다.

때로는 피라미드 내부의 곰팡이 때문에 병에 걸리고, 들짐승들이 들끓는 황무지에서 목숨을 잃고, 절벽에 안치된 왕의 무덤을 찾아 밧줄 하나에 목숨을 거는 등 위험천만한 모험의 과정도 다룬다.

또 헤르클라네움 발굴 과정에서 찾아낸 청동 조각상 파편으로 성당의 샹들리에와 성모상을 만들거나, 1943년 연합군 정찰대가 독일군 기갑사단이 숨어 있을 것으로 착각해 폼페이 유적에 150개가 넘는 폭탄을 떨어뜨린 일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지적한다.

풍부한 사진과 자료를 첨부해 책읽기를 돕고,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을 시대순으로 집대성한 고고학 연대표도 함께 실었다. 〈랜덤하우스·2만3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가니메데스를 유괴하는 제우스

세상을 씹어서 "퉤"
신해철의 쾌변독설

거침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가수 신해철이 자신의 인생철학을 솔직담백하다 못해 적나라하게 털어놨다.

이번에 출간된 '쾌변독설'은 20년 경력의 중견가수이자 청취자들의 속을 긁어주는 시원한 입담의 DJ까지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신해철의 정신세계가 고스란히 담긴 인터뷰집이다. 그의 이야기는 인터뷰 전문가 지승호씨와 일주일간 나눈 대화를 통해 그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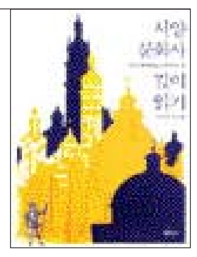
신해철은 대한민국에서 음악가로 살아가기, 결혼, 학창시절, 대마초 흡연 경험 등 친구에게 툭툭 털어놓는 듯한 자기고백부터 간통죄 폐지,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문제까지 사회적 논란거리를 풍성하게 풀어놨다. '100분 토론'에서 시청자들을 넋놓게 만들었던 그만의 시원한 독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부엔리브로·1만1천700원〉

/이은미기자 emlee@

우리 시각으로 읽는 세계의 역사

서양 문화사 깊이 읽기
최혜영 등 13인 지음



20세기말 세계사의 상징적 사건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였다. 20세기 내내 고통과 분열을 가져다 준 냉전의 종식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져 온 나라는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때, 프랑스의 시골마을에서는 히잡을 착용한 무슬림 여중생 퇴학 사건이 일어났다. 냉전 이데올로기를 대신할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출연이 예고된 것이다.

이후 9·11 테러(2001), 프랑스 이민자 소요사태(2005) 등 전세계는 '문화 전쟁'이라는 불안한 세례 속에 신음하고 있다.

역사서의 명가(名家) 푸른역사의 '우리 시각으로 읽는 세계의 역사' 시리즈 첫번째 권으로 나온 '서양 문화사 깊이 읽기'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낸 책이다.

필진으로는 최혜영 전남대 교수 등 '문화사학회' 소속 서양사학과 전공 교수 13명이 참여했다.

이 책은 연대기를 나열하던 기존의 서양사 개설서와 달리 각 시대별로 선별된 주제를 '집중탐구'한 덕에 독자들이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미시적인 접근과 함께 전체 시대사를 조망하는 작업도 놓치지 않았다.

특히 필자들이 원고를 크로스 체크하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 쉬운 글쓰기는 독자들의 책읽기를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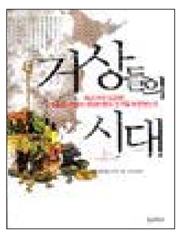
필자들은 로마의 영광과 좌절은 카이사르의 암살을 통해 풀어내고,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은 '에비타'로 불렸던 에바 페론의 사후 숭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또 '결투를 사랑한 어느 귀족의 낭만 블루스'에서는 '결투'를소재로 프랑스 절대군주의 권력 강화 등을 추적한다. 그밖에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통해 본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상, 시카고 박람회에서 풀어낸 미국의 탄생 등 세계 역사의 주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다.

각 장의 말미에는 '깊이 읽기'와'더 읽을거리'를 소개했다. 출판사는 문화사학회 교수들과 함께 프랑스사 등 각국의 역사와 사건들을 다룬 세계 역사서를 꾸준히 펴낼 계획이다. 〈푸른역사·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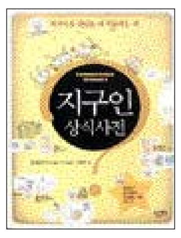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책



▲거상들의 시대=근세라는 새 시대를 꽃피웠던 일본 에도시대를 경제적 관점에서 들여다보았다. 일본의 저널리스트인 저자 와키모토 유이치는 에도시대 거상들이 남긴 발자취를 추적해 경제 시스템의 성립과 변천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나갔다. 〈한스미디어·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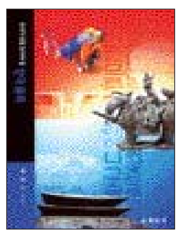
▲해거름 이삭줍기=한국 시단의 거목 김종길(82) 시인의 신작 시집. 노경(老境)의 일상과 상념을 소재로 한 52편의 작품들 에서는 60년이 넘게 시의 길을 걸어온 노시인의 창작에 대한 열정과 연륜이 느껴진다. 죽음을 비관하거나 체념하기보다는 정면으로 응시하고 달관하는 여유로움도 엿볼 수 있다. 〈현대문학·8천500원〉



▲지구인 상식사전=호기심 많은 외계인을 만났을 때 필요할지 모르는 책이다. '왜 지구인은 생각에 잠길 때 팔짱을 낄까' '흔들리는 전철에서도 지구인들이 잘자는 이유는' 등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지구인'들의 일상과 너무나 당연해서 의문조차 갖지 않던 궁금증을 새롭게 살펴본다. 〈웅진윙스·1만1천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한 강연 '민주화 20년, 한국 사회 어디로 가나'와 토론을 한데 엮은 책. 최장집, 이정우, 최영기, 장하준 등 실천적 지식인들이 인간적인 가치를 찾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 했다. 〈프레시안 북·1만8천원〉

▲그래서 우리는 떠났어=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독에 살던 13세 주인공 안나와 막스가 동유럽 각국을 떠돌며 꿈과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지빌레 베르크의 자전적 소설. 꿈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적인 세계를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창비·9천800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한국문화=고려대 박영순 교수가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겠다'는 목표로 만든 핵심적인 한국 문화 안내서. 저자는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 남의 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현암사·3만원〉

▲더러운 손의 의사들=세계적인 의학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편집장을 역임한 제롬 캐시러 의대 석좌교수가 제약회사, 의료장비회사와 의사들의 교묘하고도 불법적인 거래를 파헤쳤다. 의료인들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양문·1만5천원〉

▲오늘도 안녕하세요?=미스터리의 무거운 분위기를 살짝 걷어낸 자리에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밝고 가벼운 에피소드를 담았다. 애드거 앨런 포 상을 수상한 작가 리타 라킨이 마음만은 청춘인 평균 76.5세 할머니들이 벌이는 해프닝과 일상을 그렸다. 〈책이좋은사람·9천800원〉

▲소비자 고발 그리고 불편한 진실=지난해 5월부터 방송된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을 통해 방영된 내용들을 담았다. 단순히 문제점을 고발하는 과정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후 개선법과 대응책, 실용 정보들을 수록했다.

〈위즈덤하우스·1만6천원〉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8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代)234-8216 핸 011-609-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도
·금남로 대로접 대지 231㎡(70평) 5층 20억
·충장로 대지 230(70평) 5층 18억
·충장로 대지 208(63평) 4층 18억
·충장로 대지 165(50평) 4층 23억
·황금동 대지 132(40평) 3층 10억
·광산동 구시청 대지 537(163평) 4층 15억
·봉선동 천변대로변 코너 대지 294(89평) 4억
·용봉지구 3면도로 단층 대지 1,190(360) 8억
·월산동 대로변 대지 390(118평) 6층6억5천만
토지매매
·운림동 4차선접 2,627㎡(804평) 당 160만
·운림동 녹지 3,966(1,200평) 2억4천만
·월산동 대로접 주거지 1,090(330평) 4억3천만
·봉선동 25m접 2,315(700평) 3.3㎡당 250만
·도천동 자연녹지 16,530(5천평) 3.3㎡당 75만
·도산동 전철역앞 주거지 6,611(2천평) 20억
·인형동 주거지 11,900(3,600평) 3.3㎡당 80만
전원주택
·청풍동 주거지 760㎡(230평) 당 70만
·금곡동 주거지 1,490(450평) 1억4천만
·운림동 대지 463(140평) 한옥 1억1천만
·지산동 녹지 3,640(1,100평) 3억5천만
·담양 창평 소재지 대지 2,300(700평) 2억
·화순 남면 대지 660(200평) 한옥 4천만
임야
·화순 도곡 관리지역 52,900㎡(1만6천평) 당 8만
·화순 도곡 야산 105,700(3만2천평) 3억
·화순 도곡 3,200평 3.3㎡당 6만
·화순 남면 관리지역 165,000(5만평) 5억
·화순 한천 218,000(6만6천평)3.3㎡당 6천원
·화순 이양 53,000(1만 6천평) 9천만
기타부동산
·조대 대로변접 대지 760㎡(230평) 8억
·금호동 중원@ 대로접 330평 3.3㎡당 400만
·화순 계곡집 6,600(2천평) 8천만
·보성읍 자연녹지 30,000(9천평) 1억3천만

상무랜드공인중개사
☎(代)383-5221 핸 0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빌딩
•대지500 건물1,300 한방병원적합 차평동 매매가 75억
•보증금 36억 월세3,100만원 (지역최고상권)융자12억 매가180억 (토지와 교환가능)
•보증금8억 월 1,700만원 (신축) 융자8억 매가 34억
•보증금20억 월세4,000만원 융자18억 매가65억
•보증금5억 월세2,000만원 융자7억 매가27억
▶땅
(상무지구)
•2,800㎡(850평) 3.3㎡당 1,200만원
•727㎡(220평) 3.3㎡당 1,200만원(유흥가)
•450㎡(136평) 3.3㎡당 850만원(유흥가)
•330㎡(100평) 3.3㎡당 800만원(시청역입구)
•3,593㎡(1,087)3.3㎡당600만원
(기타지구)
•(쌍촌동)800세대아파트입구877㎡ (266평) 3.3㎡당 350만원(수퍼적합)
•(능정)그린벨트73,000㎡(2만2천평) 농장 3.3㎡당 11만원(동산동)
•(쌍촌동)대지512㎡(155평)20M 도로접 3.3㎡당 265만원
•(장등동) 3,760㎡(1,140평)평당40만원
▶병원·학원·수퍼·식당 기타
•4,300㎡(1,300평)3.3㎡당 350만원 (동림동빛고을로입구)
•근린시설(병원,학원,목욕탕 적합) 1,652㎡ (500평)㎡ 당 700만원 (하남2지구)
•1,200㎡ (360평)3.3㎡ 당 350만원 (병원,학원,식당 적합)(금호지구)
•대지528㎡(160평)3.3㎡ 당 470만원 (주공아파트정문 앞)(수완지구)
▶모텔·호텔매매·사우나
•객실35개 융자20억 매가28억
•객실33개 융자9억 매매가12억
•대지500/건물1,900 사우나 매가39억
★24시간 전화 물건 접수합니다★

대지공인중개사
(공정 책임중개)
핸 010-8572-8985
『담양군 대덕면 임야』
18032㎡ 매3.3㎡당 4만3천원 관리지역 2차선도로 150m접(공장, 물류창고, 사회복지시설적합)
『담양군 창평면 임야』
36023㎡ 매3.3㎡당 2만6천원 2차선도로 85m접
『흑석동 자연녹지 잡종지』
9300㎡ 매3.3㎡당 180만원 (물류창고적합)
『양동 주거지역 8차선대로변 주공아파트 정문건너편』
대지900㎡ 매 7억5천만원 (전시판매장, 물류창고, 사옥적합)
『중흥동 35m대로변』
대지920㎡ 한정식식당2층 건물있음 매9억5천만원 (고급식당, 사옥, 물류창고, 전시판매장, 카센타적합)
『신안동 상업지』
대지339㎡ 조립식 건물있음 매2억5천만원
부동산 중개업 동업자 1명 구함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062)973-9174, 016-757-8800
수완택지지구 200평
첨단지구 500평 200평
건물 28억 (보4억 월2000만원)
골프 연습장 (광주)
주유소 부지
공장부지 (담양 2천~8천평)
분양·임대
첨단중앙메디칼센타
(2008년 2월 준공)
1층 53평 58평 40평 편의시설
2~6층 각166평 병.의원
7층 70평 모든업종가능
건물 28억
• 광주·장성권 토지 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한일지도판매(주)
☎(예약)529-1409 상담 010-2466-1409 (전화)527-6310, 011-9433-6310
(광주시 동구 지산동 373-8 법원정문앞)
2008최신 합본(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안녕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합본책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합본책은?
① 광주 광역시 전지역 재정비·도시계획·용도지역·하남4공단 경계수록 최신 지적, 신규APT 수록
② 나주 나주시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2차 해제수록, 나주송월동 스포츠타운 수록, 송월택지개발 지구 가지번수록 나주 촌곡리 남양유업수록, 혁신도시 최종안 수록, 혁신도시로 연결된 도시계획 수록
최신 (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6개 시·군 1권에 수록) 1/7500 한일지도판매(주) 광주(062)529-1409 527-6310
정가:100만원→특별판매가:50만원
③ 화순 화순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수록 최신지적 수록
④ 장성 장성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개발예정인 장성 남면에 그린벨트 1차,2차 해제수록 나노단지 지정, 배치도 수록
⑤ 담양 담양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2차 수록, 최신지적 수록, 보촌지구 수록
⑥ 함평 함평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해제 수록, 최신지적 수록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장성,담양,화순,나주책은 그린벨트 해제된 책은 없습니다.
이외 더 많은 부분들이 있으나 서면으로는 다 알릴수가 없어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신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판매개시 한달동안 전화 예약하신분에 한하여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 50%세일을 단행하였으니 좋은 기회를 이용하세요.
【영업사원 ○○명 모집】